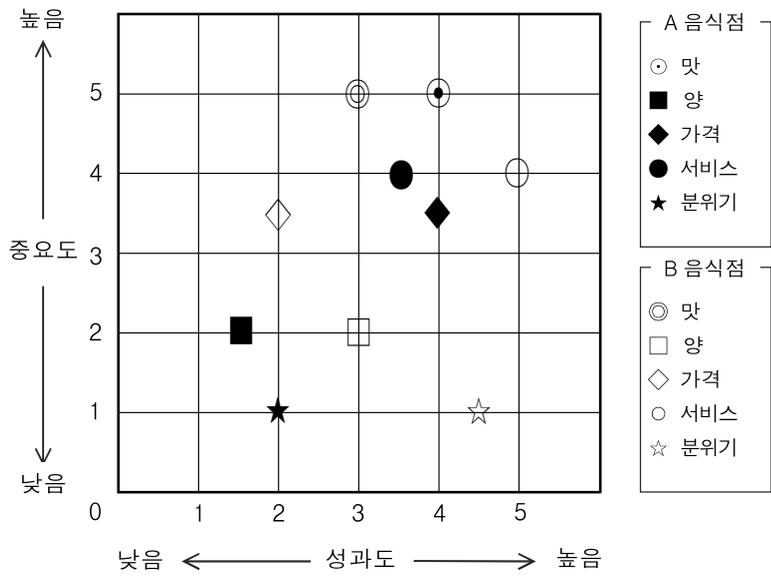


문 1. 다음 <그림>은 음식점 선택의 5개 속성별 중요도 및 이들 속성에 대한 A와 B음식점의 성과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림> 음식점 선택의 속성별 중요도 및 음식점별 성과도



※ 만족도 = 성과도 - 중요도

<보 기>

- ㄱ. A 음식점은 3개 속성에서 B 음식점보다 성과도가 높다.
- 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속성은 B 음식점의 분위기 속성이다.
- ㄷ. A 음식점과 B 음식점 사이의 성과도 차이가 가장 큰 속성은 가격이다.
- ㄹ. 중요도가 가장 높은 속성에서 A 음식점이 B 음식점 보다 성과도가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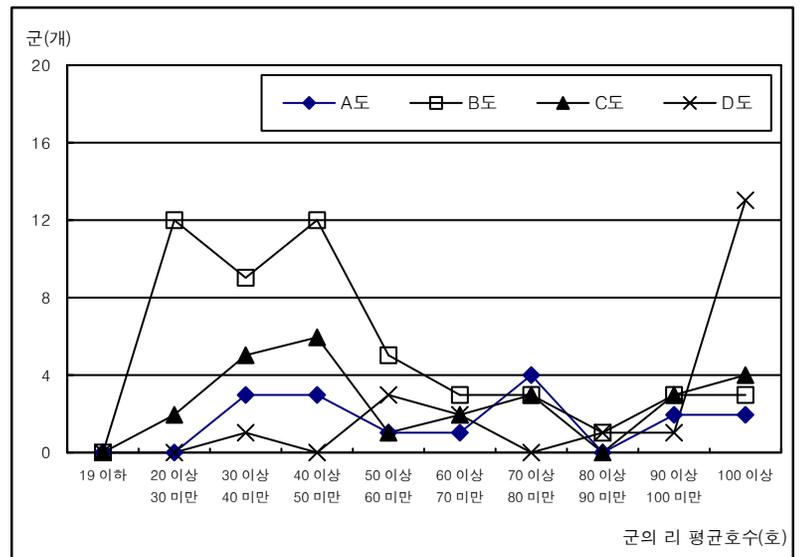
문 2. 다음 <표>와 <그림>은 18세기 후반 도(道)와 군(郡)의 리(里) 평균호(戶)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8세기 후반 4개 도의 리수와 리 평균호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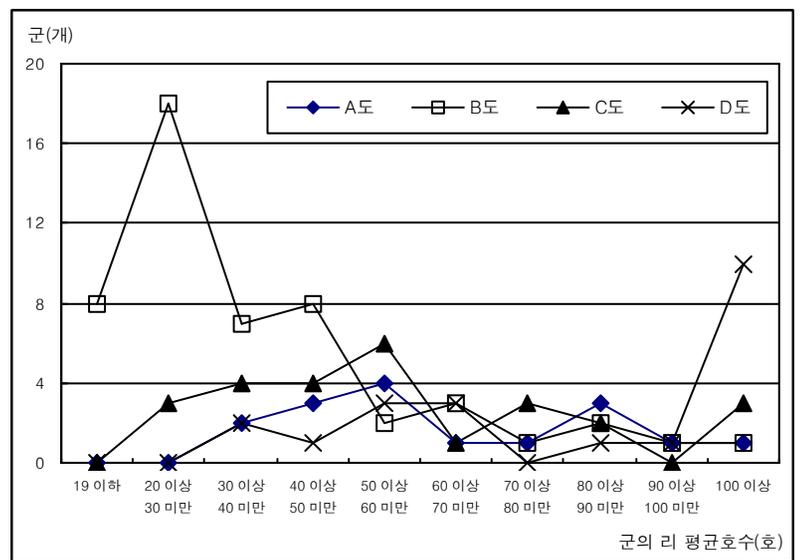
(단위: 개, 호)

연도	구분	도			
		A	B	C	D
1759	리수	910	4,764	1,458	1,205
	리 평균호수	61	44	55	99
1789	리수	955	7,477	1,549	1,411
	리 평균호수	59	29	53	89

<그림 1> 1759년 도별 군의 리 평균호수 분포



<그림 2> 1789년 도별 군의 리 평균호수 분포



※ 도(군)의 리 평균호수 = $\frac{\text{도(군)의 호수}}{\text{도(군)의 리수}}$

- ① 1759년 대비 1789년에 도의 리 평균호수 감소율이 가장 작은 도는 D도이다.
- ② 1759년에 비해 1789년 A도의 호수는 증가하였다.
- ③ 군의 리 평균호수가 90호 이상인 군이 가장 많은 도는 1759년과 1789년 모두 B도이다.
- ④ 1759년 D도의 호당 인구를 4명으로 가정하면, 당시 D도의 총인구는 40만명 미만이다.
- ⑤ 1789년 C도에서 군의 리 평균호수가 50호 미만인 군은 17개이다.

※ 다음 <표>는 가계 금융자산에 관한 국가별 비교 자료이다.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문 3 ~ 문 4]

<표 1> 각국의 연도별 가계 금융자산 비율

연도 국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A	0.24	0.22	0.21	0.19	0.17	0.16
B	0.44	0.45	0.48	0.41	0.40	0.45
C	0.39	0.36	0.34	0.29	0.28	0.25
D	0.25	0.28	0.26	0.25	0.22	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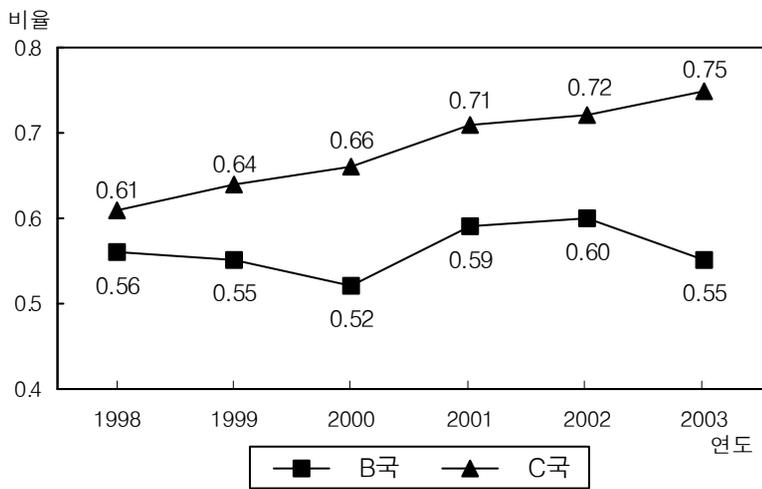
※ 가계 총자산은 가계 금융자산과 가계 비금융자산으로 이루어지며, 가계 금융자산 비율은 가계 총자산 대비 가계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표 2> 2003년 각국의 가계 금융자산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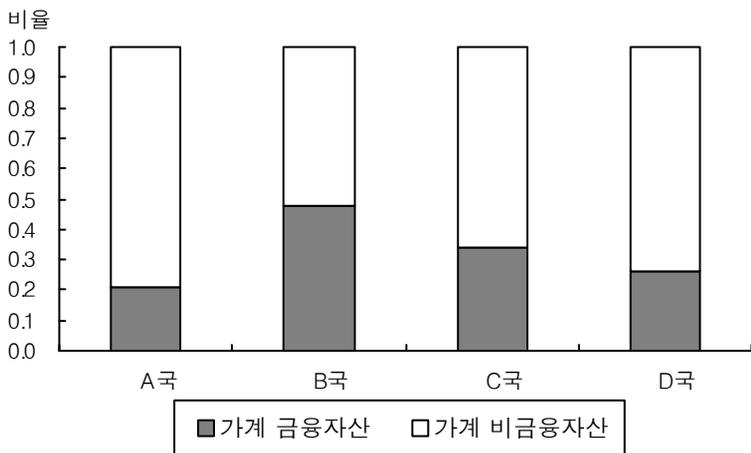
가계 금융 자산 국가	예금	보험	채권	주식	투자신탁	기타
A	0.62	0.18	0.10	0.07	0.02	0.01
B	0.15	0.30	0.10	0.31	0.12	0.02
C	0.35	0.27	0.11	0.09	0.14	0.04
D	0.56	0.29	0.03	0.06	0.02	0.04

문 3. 위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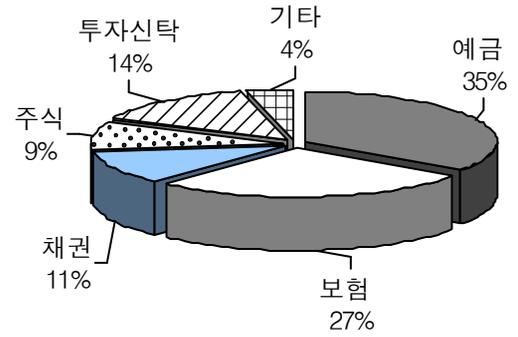
① 연도별 B국과 C국 가계 비금융자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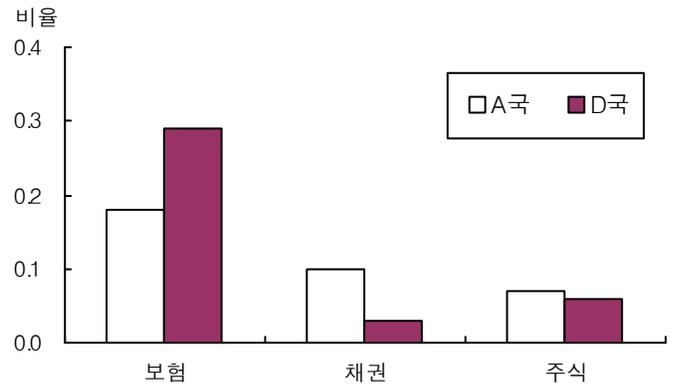
② 2000년 각국의 가계 총자산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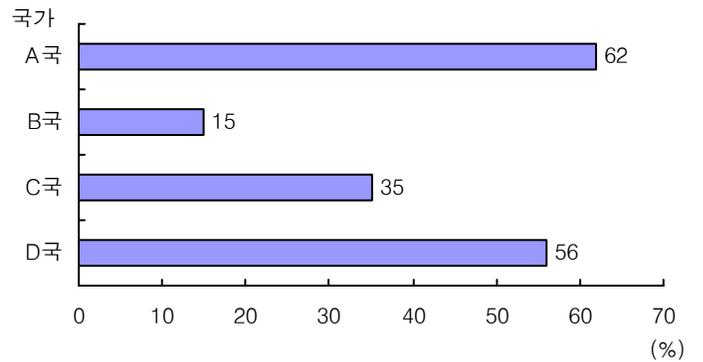
③ 2003년 C국의 가계 금융자산 구성비



④ 2003년 A국과 D국의 가계 금융자산 대비 보험, 채권, 주식 구성비



⑤ 2003년 각국의 가계 총자산 대비 예금 구성비



문 4. 위 자료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A국과 C국의 가계 금융자산 비율은 1998 ~ 2003년 동안 매년 감소하였고 B국과 D국의 가계 금융자산 비율은 2001 ~ 2003년 동안 매년 감소하였다.
 - ㄴ. 1998 ~ 2003년 동안 가계 비금융자산 비율은 매년 A국이 가장 높고 B국이 가장 낮다.
 - ㄷ. 2003년 가계 총자산 대비 투자신탁 비율은 B국이 C국보다 더 높다.
 - ㄹ. 2003년 가계 금융자산을 구성비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면 A국과 D국은 그 순서가 동일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5. 다음 <표>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체코, 헝가리 등 5개국의 GDP 대비 산업 생산액 비중에 관한 자료이다.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B, E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국가별 GDP 대비 산업 생산액 비중
(단위: %)

국가 \ 산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합
A	14	54	32	100
B	5	35	60	100
C	4	36	60	100
D	3	29	68	100
E	1	25	74	100

<보 기>

-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각국의 GDP 대비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합하면 헝가리의 GDP 대비 제조업 생산액 비중과 같다.
- 세르비아와 불가리아 각국의 GDP 대비 농업 생산액 비중을 합하면 체코의 GDP 대비 농업 생산액 비중과 같다.

B

- ① 체코
- ② 세르비아
- ③ 불가리아
- ④ 불가리아
- ⑤ 체코

E

- 세르비아
- 불가리아
- 세르비아
- 루마니아
- 루마니아

문 6. 다음 <표>는 1930년 각 도의 경작유형별 춘궁농가 호수와 춘궁농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930년 각 도의 경작유형별 춘궁농가 호수와 춘궁농가 비율
(단위: 호, %)

구분	춘궁농가				춘궁농가 비율			
	경작유형			전체	경작유형			전체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경기도	2,407	22,233	97,001	121,641	13.1	33.3	69.8	54.3
충청북도	3,564	17,891	54,435	75,890	19.9	40.3	76.3	56.8
충청남도	4,438	24,104	83,764	112,306	30.9	45.2	89.6	69.7
경상북도	13,477	47,129	84,289	144,895	20.0	36.1	57.8	42.1
경상남도	8,354	33,892	87,626	129,872	21.2	37.2	63.1	48.2
전라북도	3,098	23,191	110,469	136,758	28.7	42.6	71.5	62.2
전라남도	14,721	52,028	103,588	170,337	23.2	46.9	81.2	56.4
황해도	4,159	22,017	75,511	101,687	12.2	34.0	63.0	46.5
평안남도	4,733	17,209	33,557	55,499	14.3	28.0	58.4	36.5
평안북도	3,279	9,001	36,015	48,295	8.8	19.4	42.1	28.5
강원도	10,363	26,885	45,895	83,143	20.5	37.9	76.9	45.9
함경남도	15,003	22,383	21,950	59,336	20.7	42.2	72.3	38.1
함경북도	4,708	5,507	3,411	13,626	10.5	35.6	55.2	20.5
전국	92,304	323,470	837,511	1,253,285	18.4	37.5	68.1	48.3

※ 1) 춘궁농가 비율(%) = $\frac{\text{춘궁농가 호수}}{\text{농가 호수}} \times 100$

2) 경작유형별 춘궁농가 비율(%) = $\frac{\text{해당유형 춘궁농가 호수}}{\text{해당유형 농가 호수}} \times 100$

3) 1930년 당시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에 소속되었음.

<보 기>

- ㄱ. 춘궁농가 비율이 가장 높은 도는 충청남도였으며 가장 낮은 도는 함경북도였다.
- ㄴ. 모든 도에서 경작유형별 춘궁농가 비율은 소작농이 가장 높았다.
- ㄷ. 경상북도는 전라남도에 비해 농가 호수가 더 많았다.
- ㄹ. 경상남북도 춘궁농가 호수의 합은 전라남북도 춘궁농가 호수의 합보다 컸다.
- ㅁ. 전국 농가의 절반 이상이 춘궁농가였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문 7. 다음 <표>는 제2차 세계대전 주요참전국의 인구, 산업잠재력, 군사비지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주요참전국의 인구

(단위: 백만명)

국가 \ 연도	1890	1900	1910	1913	1920	1928	1938
A	116.8	135.6	159.3	175.1	126.6	150.4	180.6
B	62.6	75.9	91.9	97.3	105.7	119.1	138.3
C	49.2	56.0	64.5	66.9	42.8	55.4	68.5
D	39.9	43.8	49.1	51.3	55.9	62.1	72.2
E	38.3	38.9	39.5	39.7	39.0	41.0	41.9
F	37.4	41.1	44.9	45.6	44.4	45.7	47.6
G	30.0	32.2	34.4	35.1	37.7	40.3	43.8

<표 2> 주요참전국의 산업잠재력

국가 \ 연도	1880	1900	1913	1928	1938
A	24.5	47.5	76.6	72.0	152.0
B	46.9	127.8	298.1	533.0	528.0
C	27.4	71.2	137.7	158.0	214.0
D	7.6	13.0	25.1	45.0	88.0
E	25.1	36.8	57.3	82.0	74.0
F	73.3	100.0	127.2	135.0	181.0
G	8.1	13.6	22.5	37.0	46.0

※ 산업잠재력은 1900년 F국의 산업잠재력을 100으로 하여 계산한 수치임.

<표 3> 주요참전국의 군사비지출

(단위: 백만달러)

국가 \ 연도	1930	1934	1938
A	722	3,479	5,429
B	699	803	1,131
C	162	709	7,415
D	218	292	1,740
E	498	707	919
F	512	540	1,863
G	266	455	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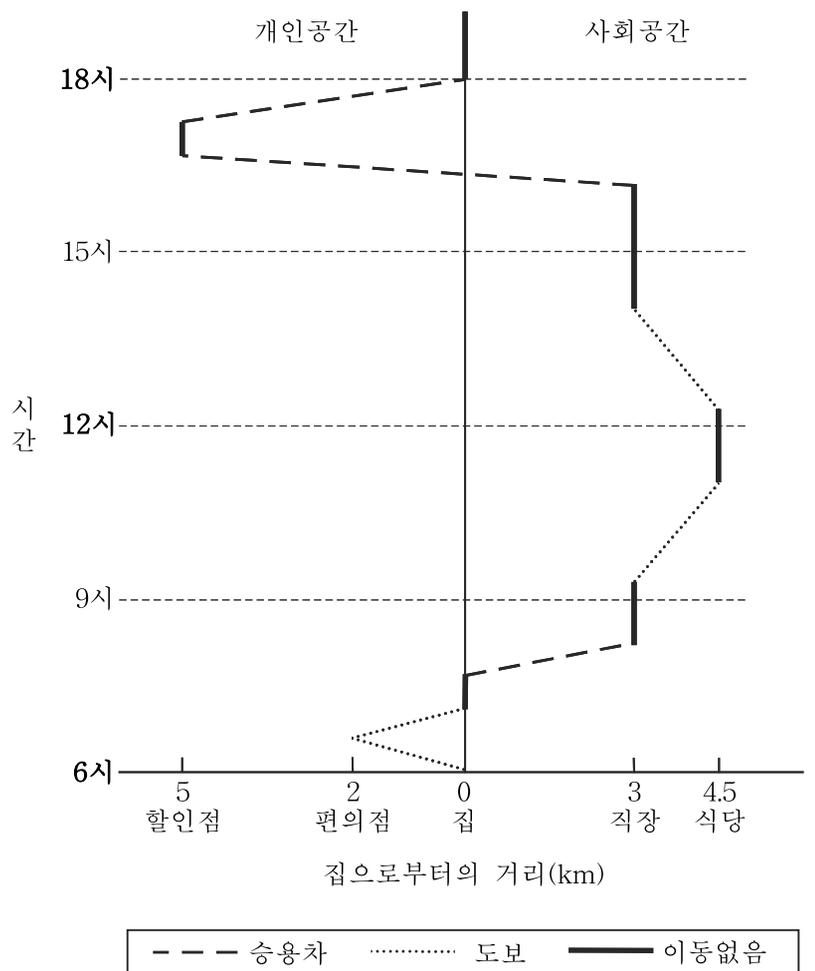
<보 기>

- ㄱ. 1913년에 비해 1920년에 A, C, E, F, G국의 인구는 모두 감소한 반면, B, D국의 인구는 모두 증가하였다.
- ㄴ. 1920년에 비해 1938년에 주요참전국의 인구는 모두 증가하였다.
- ㄷ. 1880 ~ 1938년 동안 A국을 제외한 주요참전국의 산업잠재력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ㄹ. 1930년 대비 1938년의 군사비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C국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B국이다.
- ㅁ. 193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승전동맹(A, B, E, F국)의 산업잠재력의 합과 군사비지출의 합은 패전동맹(C, D, G국)에 비해 모두 더 컸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문 8. 다음 <그림>은 J씨의 하루 동안 활동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림> J씨의 시간-공간 활동경로



※ 집을 중심으로 한 좌우의 각 지점은 개인공간(할인점, 편의점)과 사회공간(직장, 식당)으로 구분한 것임.

<보 기>

- ㄱ. 오전 중에 집 → 편의점 → 직장 → 식당의 경로로 이동하였다.
- ㄴ. 할인점과 직장 사이의 거리가 할인점과 편의점 사이의 거리보다 더 멀다.
- ㄷ. 집과 편의점 사이, 직장과 식당 사이는 각각 도보로 이동하였다.
- ㄹ. 직장에서 식당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집에서 직장으 로 가는데 걸린 시간보다 더 길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9. 다음 <표>는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전년 대비 신용등급변동건수 366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 1> 연도별 신용등급변동 현황

(단위: 건, %)

구분	등급변동건수			등급변동비율		
	상향	하향	합	상향	하향	합
1992	3	5	8	0.82	1.37	2.19
1993	7	1	8	1.91	0.27	2.19
1994	4	9	13	1.09	2.46	3.55
1995	7	17	24	1.91	4.64	6.56
1996	5	13	18	1.37	3.55	4.92
1997	0	66	66	0.00	18.03	18.03
1998	4	22	26	1.09	6.01	7.10
1999	22	20	42	6.01	5.46	11.48
2000	32	17	49	8.74	4.64	13.39
2001	28	17	45	7.65	4.64	12.30
2002	23	6	29	6.28	1.64	7.92
2003	28	10	38	7.65	2.73	10.38
계	163	203	366	44.54	55.46	100.00

※ 1) 등급상향(하향)비율(%) = $\frac{\text{등급상향(하향)건수}}{366\text{건}} \times 100$

2) 등급변동비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2> 신용등급변동 전후의 등급 비교표

(단위: 건)

높음 ← ————— ————— → 낮음

구분	변동후 등급															
	AAA	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	C	D	
변 동 전 등 급	AAA		5	4	2	7										
	AA+	7		23	5	3	3	4		1						
	AA		21		11	6		6							1	
	A+		1	13		5	5	4		3					1	
	A			4	28		5	7			1	1				
	BBB+				1	15		23	1	8						
	BBB					1	43		9	2						
	BB+						1	6		9	1	6			1	1
	BB							3	15		2	2	1	1	1	3
	B+											2				1
	B									4			2		3	1
	CCC														2	2
	CC															1
	C															3
	D															

↑ 높음 ↓ 낮음

※ BBB 이상은 투자적격등급이고, BB+ 이하는 투자부적격등급임.

- ① 1998년 이전에는 매년 등급하향비율이 등급상향비율보다 높고, 1999년 이후에는 매년 등급상향비율이 등급하향비율보다 높다.
- ② 등급하향건수 대비 등급상향건수 비율이 가장 높은 해는 2002년이고, 가장 낮은 해는 1997년이다.
- ③ 투자부적격등급에서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된 건수는 10건이고, 투자적격등급에서 투자부적격등급으로 하향된 건수는 이보다 많다.
- ④ 신용등급이 두 등급 이상 하향된 건수 중에서 12건은 D 등급으로 하향되었다.
- ⑤ <표 2>의 중심대각선보다 두 칸 아래에 위치한 건수의 합인 15건은 신용등급이 두 등급 하향되었고, 세 등급 이상 하향된 건수는 0이다.

문 10. 다음 <표>는 1919 ~ 1937년 동안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보통문관시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연도별 보통문관시험 응시자, 합격자, 임용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임용자 수					
		조선인 (A)	일본인 (B)	합 (C)	조선인		일본인		합	
					임용 (D)	임용률 (D/A)	임용 (E)	임용률 (E/B)	임용 (F)	임용률 (F/C)
1919	385	9	59	68	8	88.9	49	83.1	57	83.8
1920	404	9	59	68	6	66.7	50	84.7	56	82.4
1921	522	17	73	90	15	88.2	55	75.3	70	77.8
1922	551	16	89	105	13	81.3	73	82.0	86	81.9
1923	535	7	41	48	7	100.0	35	85.4	42	87.5
1924	544	8	37	45	7	87.5	26	70.3	33	73.3
1925	485	7	21	28	6	85.7	18	85.7	24	85.7
1926	457	7	34	41	7	100.0	27	79.4	34	82.9
1927	476	5	21	26	4	80.0	18	85.7	22	84.6
1928	511	3	24	27	2	66.7	23	95.8	25	92.6
1929	415	5	15	20	2	40.0	14	93.3	16	80.0
1930	405	17	27	44	12	70.6	23	85.2	35	79.5
1931	426	21	29	50	14	66.7	24	82.8	38	76.0
1932	544	23	30	53	18	78.3	26	86.7	44	83.0
1933	726	40	67	107	25	62.5	47	70.1	72	67.3
1934	938	55	51	106	30	54.5	39	76.5	69	65.1
1935	1,005	34	22	56	16	47.1	16	72.7	32	57.1
1936	1,098	33	26	59	15	45.5	20	76.9	35	59.3
1937	1,144	69	42	111	17	24.6	25	59.5	42	37.8
계	11,571	385	767	1,152	224	58.2	608	79.3	832	72.2

※ 응시자는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됨.

<보 기>

- ㄱ. 1920 ~ 1932년 동안 보통문관시험 응시자 수는 매년 400명에서 600명 사이였으나, 1934년에 1,000명을 넘어선 후 193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ㄴ. 1919 ~ 1929년 동안 합격자 수 대비 조선인 합격자 수의 비율은 매년 20%에 미치지 못했으나, 1934년부터는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 ㄷ. 조사기간 동안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했지만 임용되지 못한 전체 인원은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많았다.
- ㄹ. 조사기간 동안의 전체 임용자 수는 일본인이 조선인의 2.5배 이상이었고 전체 합격자 수는 일본인이 조선인의 약 2배였다.
- ㅁ. 조사기간 동안 조선인과 일본인의 전체 임용률은 각각 58.2%, 79.3%이었고, 매년 일본인의 임용률이 조선인의 임용률보다 높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문 11. 다음 <표>는 주요 도시의 대기 오염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주요 도시의 대기 오염도

구분 연도 도시	연평균 아황산가스 오염도(ppm)				연평균 오존 오염도(ppm)				빗물의 연중최저 pH			
	2002	2003	2004	2005	2002	2003	2004	2005	2002	2003	2004	2005
A	0.019	0.006	0.005	0.005	0.014	0.017	0.014	0.013	5.4	4.8	4.9	4.5
B	0.023	0.010	0.006	0.007	0.014	0.022	0.023	0.024	5.2	4.9	4.9	5.0
C	0.038	0.009	0.006	0.006	0.015	0.019	0.020	0.022	5.7	5.8	4.8	5.3
D	0.022	0.008	0.007	0.007	0.014	0.019	0.018	0.020	6.0	5.0	4.7	4.6
E	0.013	0.006	0.004	0.004	0.015	0.017	0.018	0.022	5.8	5.2	5.0	5.2
F	0.021	0.007	0.004	0.005	0.014	0.020	0.018	0.019	5.7	4.7	4.7	4.8
G	0.030	0.013	0.011	0.010	0.014	0.021	0.020	0.022	5.4	5.0	5.0	5.1

- ※ 1) 연평균 아황산가스 오염도의 적정 환경기준치는 0.02 ppm 이하임.
- 2) 연평균 오존 오염도의 적정 환경기준치는 0.06 ppm 이하임.
- 3) 빗물의 연중최저 pH의 적정 환경기준치는 pH 5.6 이상임.
- 4) 산도는 pH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pH가 낮을수록 산도는 높아짐.

<보 기>

ㄱ. 2003 ~ 2005년 동안 매년 연평균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G이고, 동일 기간 동안 매년 연평균 오존 오염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B이다.

ㄴ. 2005년의 경우, 연평균 오존 오염도가 가장 낮고 빗물의 연중최고 산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연평균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가장 낮은 도시와 동일하다.

ㄷ. 연평균 오존 오염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진 도시는 B, C, E이고, 빗물의 연중최고 산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진 도시는 D이다.

ㄹ. 2002년과 2005년을 비교하였을 때, 연평균 아황산가스 오염도의 감소폭이 가장 큰 도시는 D이고 가장 작은 도시는 E이다.

ㅁ. 2002 ~ 2005년 동안 연평균 오존 오염도는 모든 도시에서 적정 환경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으나, 2004년과 2005년에 빗물의 연중최저 pH는 모든 도시에서 적정 환경기준치를 벗어났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문 12. 다음 <표>는 A~E 다섯 명이 서로에게 직접 소식을 전달하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A ~ E의 소식 전달 여부

구 분	전달받는 사람					
	A	B	C	D	E	
전달하는 사람	A	-	0	1	1	0
	B	0	-	1	1	0
	C	0	0	-	1	0
	D	1	0	0	-	1
	E	1	1	0	0	-

- ※ 1) 전달하는 사람 기준으로 0은 직접 전달하지 않음을, 1은 직접 전달함을 의미함.
- 2) A ~ E 다섯 명은 그들 이외의 사람들과는 소식을 주고받지 않음.

<보 기>

ㄱ. B가 전달받은 소식은 다른 사람을 거쳐도 A에게 전달될 수 없다.

ㄴ. 가장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직접 전달받는 사람은 D이다.

ㄷ. C는 E가 전달하는 소식을 B를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다.

ㄹ. E가 전달받은 소식은 B와 C를 순서대로 거쳐 D에게 전달될 수 있다.

ㅁ. D와 E를 제외하고는 A에게 직접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ㅁ
- ④ ㄱ, ㄴ, ㄷ
- ⑤ ㄴ, ㄹ, ㅁ

문 13. 다음 <표>는 국가 주요정책 사업분야 중 A사업의 2003년 예·결산과 2004년 예산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1> A사업의 소관부처별 예·결산 현황
(단위: 십억원, %)

소관부처	2003년 예산		2003년 결산		2004년 예산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농림부	19,950	86	24,300	88	19,630	88
해양수산부	1,800	8	1,790	7	1,451	6
산림청	1,200	5	1,130	4	1,056	5
농촌진흥청	300	1	300	1	194	1
계	23,250	100	27,520	100	22,331	100

<표 2> A사업의 회계별 예·결산 현황
(단위: 십억원, %)

회 계	2003년 예산		2003년 결산		2004년 예산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일반회계	7,650	33	7,370	27	7,612	34
특별회계	8,200	35	8,650	31	8,918	40
기 금	7,400	32	11,500	42	5,801	26
계	23,250	100	27,520	100	22,331	100

<표 3> A사업의 회계, 소관부처별 예·결산 현황
(단위: 십억원, %)

회 계	소관부처	2003년 예산		2003년 결산		2004년 예산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일반회계	농림부	5,700	75	5,650	77	6,100	80
	해양수산부	1,100	14	970	13	790	10
	산림청	700	9	600	8	573	8
	농촌진흥청	150	2	150	2	149	2
	소계	7,650	100	7,370	100	7,612	100
특별회계	농림부	7,000	85	7,450	86	7,934	89
	해양수산부	550	7	520	6	456	5
	산림청	500	6	530	6	483	5
	농촌진흥청	150	2	150	2	45	1
	소계	8,200	100	8,650	100	8,918	100
기 금	농림부	7,250	98	11,200	97	5,596	96
	해양수산부	150	2	300	3	205	4
	소계	7,400	100	11,500	100	5,801	100

- ① A사업에서 2004년 농림부의 예산 구성비는 전년 대비 2%p 증가한 반면, 해양수산부의 예산 구성비는 전년 대비 2%p 감소하였다.
- ② A사업에서 농림부는 2003년 기금의 예산을 3조 9천 5백억원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이 초과집행액은 2003년 A사업 전체의 예산과 결산 차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 ③ A사업에서 2004년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산 구성비의 전년 대비 증감폭은 각각 5%p와 6%p이고, 이는 2004년 일반회계 예산 구성비의 전년 대비 증감폭보다 크다.
- ④ A사업에서 2004년 농림부의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이 사업의 농림부 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기금 예산의 감소로 인해 약 1.6% 감소하였다.
- ⑤ A사업에서 2003년과 2004년 모두 일반회계 예산은 해양수산부가 산림청보다 많고, 특별회계 예산은 산림청이 해양수산부보다 많다.

문 14. 개별토지 가격은 표준지 가격에 도로접면상태 가중치와 토지용도 가중치를 곱하여 결정된다. <표 1>에서 제시된 토지 A~E의 표준지는 모두 중로한면이고 주거용이며 단위면적(1m²)당 가격이 10만원이다. A~E 중 토지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와 가장 낮은 토지의 가격 차이는?

<표 1> 개별토지 특성

개별토지	면적(m ²)	도로접면상태	토지용도
A	10	광대한면	주거용
B	10	광대한면	상업용
C	10	소로한면	상업용
D	20	소로한면	주거용
E	20	맹지	공업용

- ※ 1) 광대한면: 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2) 중로한면: 폭 12m 이상 25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3) 소로한면: 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4) 맹지: 손수레나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

<표 2> 도로접면상태 가중치

개별토지	표준지	광대한면	중로한면	소로한면	맹지
표준지	광대한면	1.0	1.0	0.8	0.6
	중로한면	1.0	1.0	0.9	0.7
	소로한면	1.2	1.1	1.0	0.8
	맹지	1.4	1.3	1.2	1.0

※ 예를 들어 표준지의 도로접면상태가 소로한면일 때, 맹지인 개별토지의 가격은 표준지 가격의 0.8배임.

<표 3> 토지용도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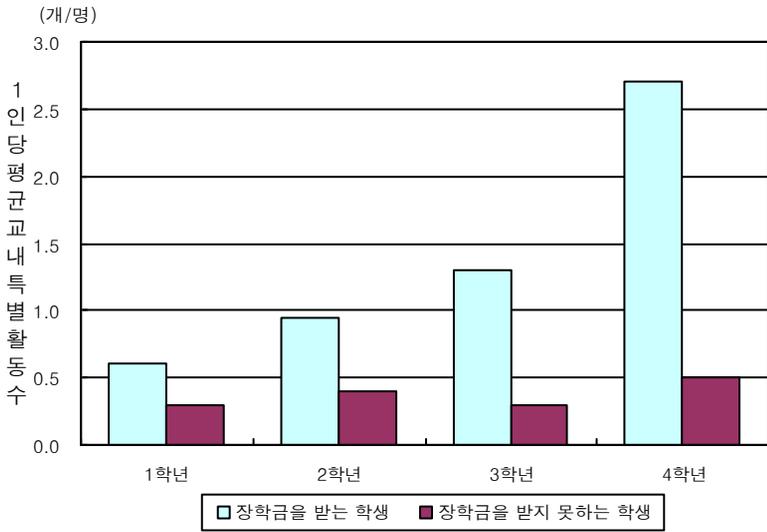
개별토지	표준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전·답	임야
표준지	주거용	1.0	1.3	1.0	0.8	0.5
	상업용	0.8	1.0	0.8	0.6	0.4
	공업용	1.0	1.3	1.0	0.8	0.6
	전·답	1.3	1.7	1.3	1.0	0.7
	임야	1.9	2.4	1.8	1.4	1.0

※ 예를 들어 표준지의 토지용도가 주거용일 때, 임야인 개별토지의 가격은 표준지 가격의 0.5배임.

- ① 50만원
- ② 60만원
- ③ 70만원
- ④ 80만원
- ⑤ 90만원

문 15. 다음 <그림>은 A 대학교의 1, 2,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으로 나누어 이들이 해당 학년 동안 참가한 1인당 평균 교내특별활동 수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림> 1인당 평균 교내특별활동 수



<보 기>

- ㄱ.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는 늘어났다.
- ㄴ. 장학금을 받는 4학년생이 참가한 1인당 평균 교내특별활동 수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4학년생이 참가한 1인당 평균 교내특별활동 수의 5배 이하이다.
- ㄷ.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받지 못하는 학생 간의 1인당 평균 교내특별활동 수의 차이가 커졌다.
- ㄹ. 전체 2학년생이 참가한 1인당 평균 교내특별활동 수에 비해 전체 3학년생이 참가한 1인당 평균 교내특별활동 수가 많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16. 다음 <표>는 세계 야구선수권대회 1조(A ~ D 4개국)의 예선 경기결과이다. 본선진출국은 2개국이며 승리 경기수가 많은 순서대로 결정된다. 승리 경기수가 같은 경우에는 <본선진출국 결정규칙> 중 한 가지가 적용된다. 이 때 본선진출국가가 다르게 정해지는 규칙은?

<표> 1조의 예선 경기결과

행 \ 열	A	B	C	D
A	-	7:3	2:1	2:1
B		-	4:3	1:2
C			-	7:2
D				-

※ 각 경기결과는 행(行) 국가의 '득점:실점'을 의미함.

<본선진출국 결정규칙>

- 규칙 1: 총득실차가 가장 큰 국가
- 규칙 2: 총득점이 가장 많은 국가
- 규칙 3: 총실점이 가장 적은 국가
- 규칙 4: 승리 경기수가 같은 국가 간 경기결과만을 대상으로 계산된 총득실차가 가장 큰 국가
- 규칙 5: 승리 경기수가 같은 국가 간 경기결과만을 대상으로 계산된 총실점이 가장 적은 국가

※ 득실차 = 득점 - 실점

- ① 규칙 1
- ② 규칙 2
- ③ 규칙 3
- ④ 규칙 4
- ⑤ 규칙 5

문 17. 고려 문종 23년에 측량척도를 일원화하여 토지면적에 선형으로 비례하는 단위로 농지규격을 정하고, 농지규격에 비례하여 세곡을 부과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제도에 대한 조사 자료 중 일부가 소실되어 <표>의 자료만이 보존되어 있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농지규격별 토지면적

농지규격	토지면적	농지규격	토지면적
1결	(33보) ²	9결	
2결		10결	
3결		11결	
4결	(66보) ²	12결	
5결		13결	
6결		14결	
7결		15결	
8결		16결	(132보) ²

※ 1보 = 6척

<표 2> 농지규격 단위당 세곡

농지규격	세곡
1부	7홉 5작
1결	

※ 1) 1결 = 10부, 1승 = 10홉, 1홉 = 10작
2) 세곡은 쌀로만 납부함.

<보 기>

- ㄱ. 농지 9결의 토지면적은 (99보)²이다.
- ㄴ. 농지 7결에 대한 세곡은 쌀 52승 5홉이다.
- ㄷ. 농지 6결과 농지 8결의 토지면적 차이는 (44보)²보다 작다.
- ㄹ. 직사각형 모양인 농지 5결의 가로 길이가 54보일 때, 세로 길이는 100보 5척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문 18. 다음 <표>는 2005년 말 총자산, 부동산자산, 예금자산, 가구당 총자산의 각 항목별 상위 7개 동(洞) 자산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항목별 상위 7개 동의 자산규모

구분 순위	총자산(조원)		부동산자산(조원)		예금자산(조원)		가구당 총자산(억원)	
	동명	규모	동명	규모	동명	규모	동명	규모
1	여의도동	24.9	대치동	17.7	여의도동	9.6	을지로동	51.2
2	대치동	23.0	서초동	16.8	태평로동	7.0	여의도동	26.7
3	서초동	22.6	압구정동	14.3	을지로동	4.5	압구정동	12.8
4	반포동	15.6	목동	13.7	서초동	4.3	도곡동	9.2
5	목동	15.5	신정동	13.6	역삼동	3.9	잠원동	8.7
6	도곡동	15.0	반포동	12.5	대치동	3.1	이촌동	7.4
7	압구정동	14.4	도곡동	12.3	반포동	2.5	서초동	6.4

※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예금자산, 증권자산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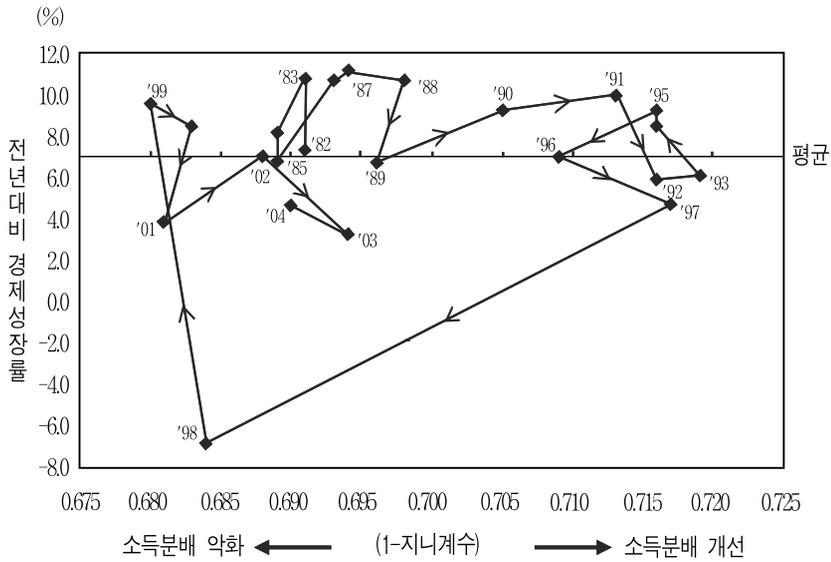
<보 기>

- ㄱ. 압구정동의 가구수는 여의도동의 가구수보다 많다.
- ㄴ. 이촌동의 가구수는 2만 이상이다.
- ㄷ. 대치동의 증권자산은 서초동의 증권자산보다 많다.
- ㄹ. 여의도동의 증권자산은 최소 4조원 이상이다.
- ㅁ. 총자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비율은 도곡동이 목동보다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문 21. 다음 <그림>은 1982 ~ 2004년 동안 전년대비 경제성장률과 소득 분배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림> 전년대비 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 변화 추이



※ 평균: 조사기간 중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의 평균값

<보 기>

- ㄱ. 1990 ~ 1997년의 지니계수 평균값은 0.3 이하이다.
- ㄴ. 1988 ~ 1992년 동안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연도에는 소득분배도 전년에 비해 악화되었다.
- ㄷ. 조사기간 동안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연도는 1999년이다.
- ㄹ. 1999년에는 1998년에 비해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이 높아졌지만 소득분배는 악화되었다.
- ㅁ.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이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었고 소득분배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ㄱ, ㄷ, ㅁ
- ⑤ ㄴ, ㄹ, ㅁ

문 22. 다음 <표>는 A 도시와 다른 도시들 간의 인구이동량과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인구가 많은 도시부터 적은 도시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도시 간 인구이동량과 거리

(단위: 천명,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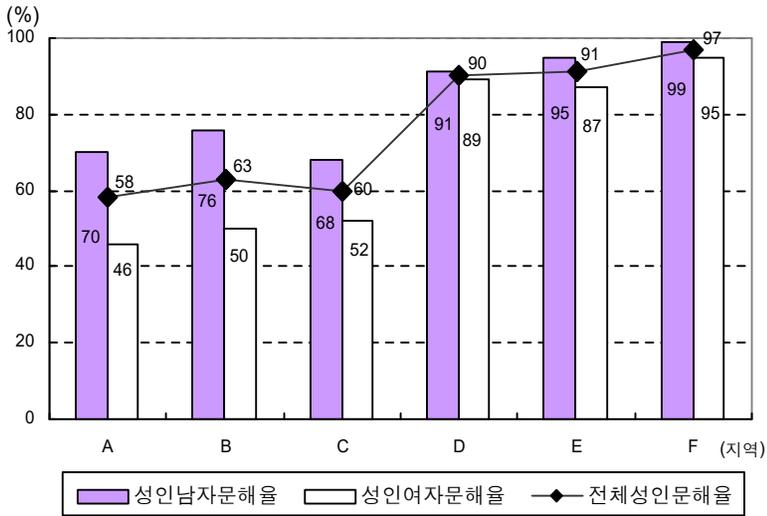
도시 간	인구이동량	거리
A ↔ B	60	2
A ↔ C	30	4.5
A ↔ D	25	7.5
A ↔ E	55	4

※ 두 도시 간 인구이동량 = $k \times \frac{\text{두 도시 인구의 곱}}{\text{두 도시 간의 거리}}$, k는 양의 상수임.

- ① B - C - D - E
- ② D - C - E - B
- ③ D - E - C - B
- ④ E - D - B - C
- ⑤ E - D - C -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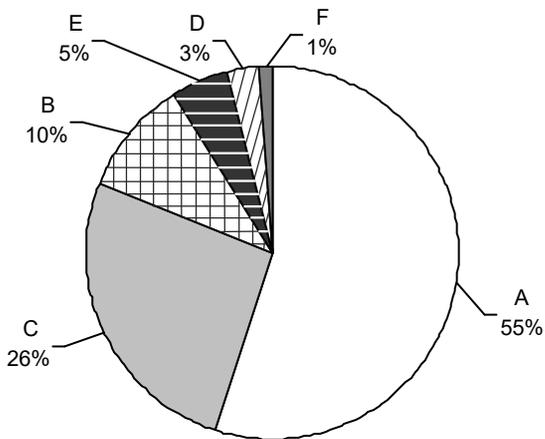
문 23. 다음 <그림>은 성인의 문해율 및 문맹 청소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림 1> 지역별 성인 문해율



※ 문해율 (%) = 100 - 문맹률 (%)

<그림 2> 문맹 청소년 지역별 분포



<보 기>

- ㄱ. 성인 남자 문맹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문맹 청소년 수가 많다.
- ㄴ. A지역의 경우, 성인 남자 문맹자 수는 성인 여자 문맹자 수보다 많다.
- ㄷ. 남녀 간 성인 문해율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B지역이다.
- ㄹ. A지역의 문맹 청소년 수는 C지역의 문맹 청소년 수의 2배 이상이다.
- ㅁ. 성인 여자 문맹률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문맹 청소년 수가 전체 지역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문 24. 다음 <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오디오, TV 등 5개 제품의 생산 및 내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A, B, C, D, E에 해당하는 제품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5개 제품의 생산 및 내수 현황

(단위: 만대)

제품	생산		내수	
	2004년 5월	2005년 5월	2004년 5월	2005년 5월
A	347	397	163	215
B	263	293	133	163
C	385	359	103	158
D	150	157	72	77
E	161	59	151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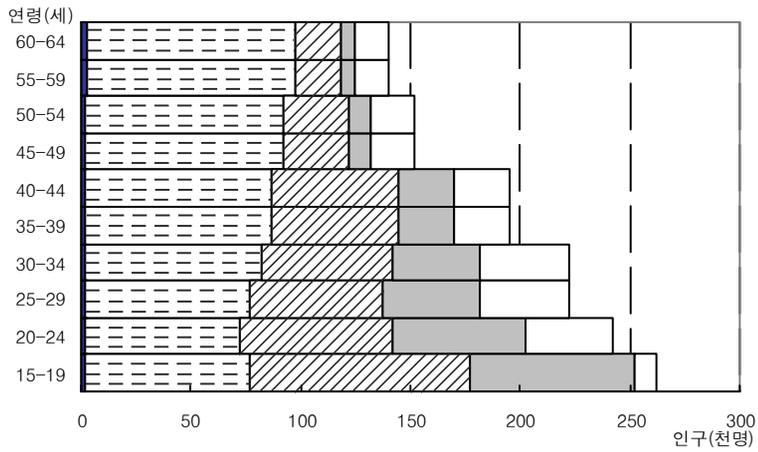
<보 기>

- 2005년 5월에 냉장고, 세탁기, TV는 전년동월에 비해 생산과 내수 모두 증가하였다.
- 2005년 5월에 에어컨은 전년동월에 비해 생산은 감소하였으나 내수는 증가하였다.
- 2005년 5월에 전년동월에 비해 생산이 증가한 제품 가운데 생산증가대수 대비 내수증가대수의 비율이 가장 낮은 제품은 세탁기이다.
- 2005년 5월에 전년동월 대비 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TV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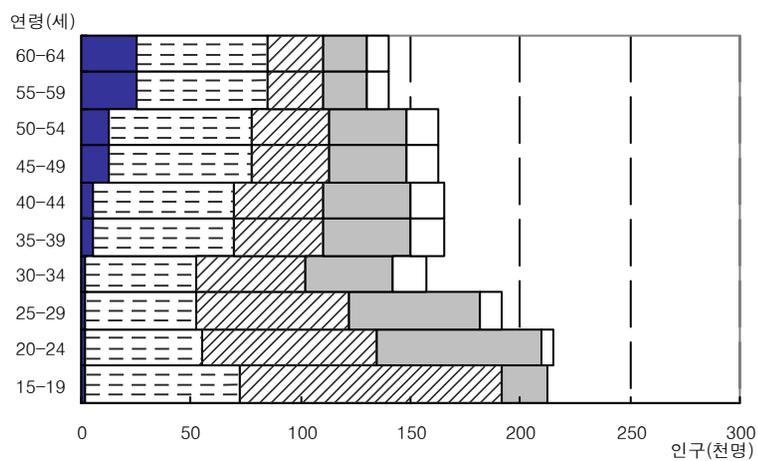
- | | A | B | C | D | E |
|---|-----|-----|-----|-----|-----|
| ① | 냉장고 | TV | 에어컨 | 세탁기 | 오디오 |
| ② | 냉장고 | TV | 오디오 | 에어컨 | 세탁기 |
| ③ | 세탁기 | TV | 오디오 | 냉장고 | 에어컨 |
| ④ | TV | 세탁기 | 에어컨 | 냉장고 | 오디오 |
| ⑤ | TV | 냉장고 | 에어컨 | 세탁기 | 오디오 |

문 25. 다음 <그림>은 1995년과 2003년에 조사한 A, B국 국민의 연령별 학력수준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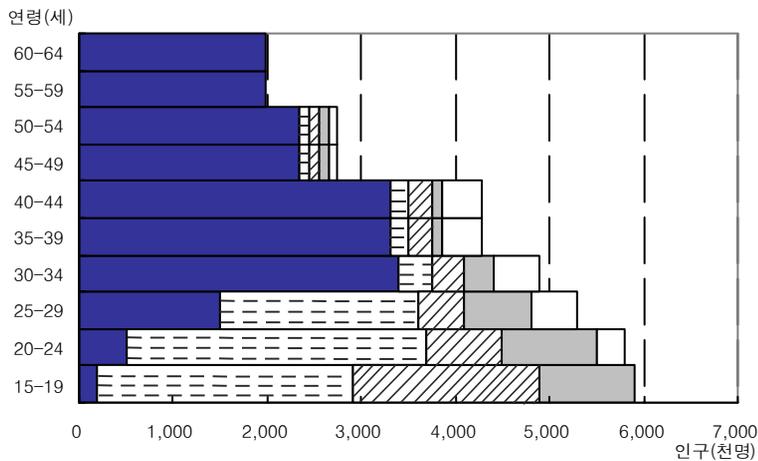
<그림 1> A국의 1995년 연령별 학력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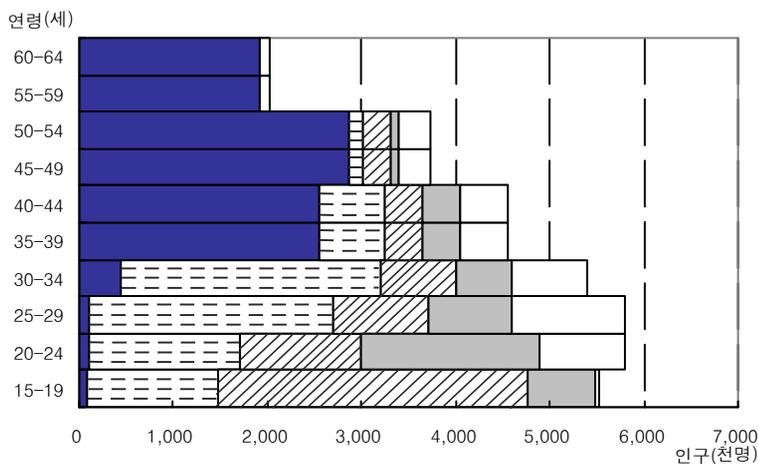
<그림 2> A국의 2003년 연령별 학력수준



<그림 3> B국의 1995년 연령별 학력수준



<그림 4> B국의 2003년 연령별 학력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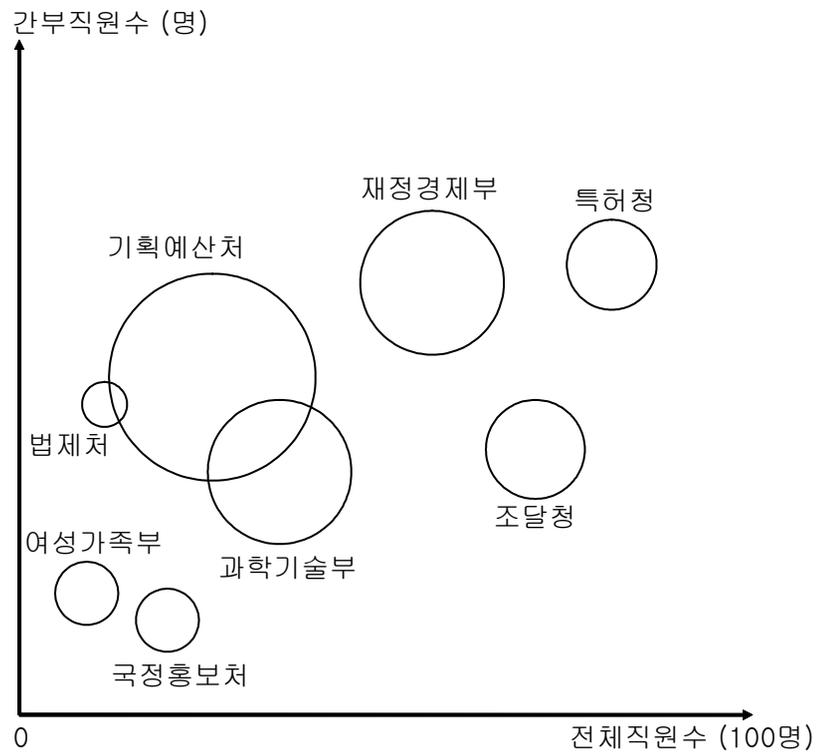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 이상

- ① 2003년 B국 25 ~ 29세 인구는 40대 인구보다 많다.
- ② 1995년 20 ~ 24세 인구 중 학력수준이 대학 이상인 인구는 A국이 B국보다 많다.
- ③ A국 60 ~ 64세 인구 중 학력수준이 초등학교 졸업인 사람의 수는 1995년에 비해 2003년에 증가했다.
- ④ B국의 경우 학력수준이 대학이상인 15 ~ 54세 인구는 1995년에 비해 2003년에 감소했다.
- ⑤ A국과 B국 각각 15 ~ 19세 인구는 1995년에 비해 2003년에 감소했다.

문 26.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8개 중앙부처의 예산규모와 인적자원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A ~ F 부처를 <그림>에서 찾을 때 두 번 이상 해당되는 부처는?

<그림> 부처별 예산규모와 인적자원



- ※ 1) 원의 면적이 넓을수록 예산규모가 큼.
 2) 각 원의 중심 좌표는 전체직원수와 간부직원수를 각각 나타냄.

— <보 기> —

- 전체직원인 가장 많은 부처와 가장 적은 부처는 각각 A와 B이다.
- 예산규모가 가장 큰 부처와 가장 작은 부처는 각각 C와 D이다.
- 전체직원수 대비 간부직원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와 가장 낮은 부처는 각각 E와 F이다.

- ① 특허청
- ② 기획예산처
- ③ 법제처
- ④ 여성가족부
- ⑤ 조달청

문 27. 다음 <표>는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및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

(단위: 개소)

합계	종	소유주체	도로				철도				건축물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교량	터널	역사	항만	댐	공동주택	일반	다중				지하도상가	하천	
38,232	1종	합	11,946	1,850	210	18	119	232	545	2	65	50	7,761	602	-	18	267	207	-	-
		공공	3,755	1,789	181	17	119	232	545	2	43	50	225	70	-	8	267	207	-	-
	민간	8,191	61	29	1	-	-	-	-	22	-	7,536	532	-	10	-	-	-	-	
	2종	합	26,286	3,295	477	83	53	318	28	437	177	8	16,810	726	2,015	18	310	1,008	358	165
공공	7,642	3,263	475	80	49	317	28	437	151	8	637	82	427	14	310	993	226	145		
민간	18,644	32	2	3	4	1	-	-	26	-	16,173	644	1,588	4	-	15	132	20		

※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됨.

<표 2>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등급별 현황

(단위: 개소)

합	안전시설물			취약시설물	
	A급	B급	C급	D급	E급
38,232	9,363	25,497	3,299	68	5

<표 3> 취약시설물 등급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	교량	건축물	항만	하천	댐	상하수도	복개구조물	옹벽
D급	68	38 (지자체36, 건교부2)	11 (건교부7, 지자체4)	5 (해수부5)	3 (지자체1, 농업기반공사2)	3 (수자원공사1, 농업기반공사2)	2 (지자체2)	4 (지자체4)	2 (지자체2)
E급	5	3 (지자체3)	-	-	-	-	-	1 (지자체1)	1 (지자체1)

※ () 안은 시설물의 관리 주체별 분류 현황임.

<보 기>

- ㄱ.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중 지하도상가의 소유주체는 1종과 2종 모두 민간이 공공보다 많다.
- ㄴ. 안전점검 결과가 E급인 시설물은 모두 지자체 관리 시설물이다.
- ㄷ.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중 철도, 댐, 하천의 소유 주체는 모두 공공이다.
- ㄹ.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중 터널, 지하차도는 안전점검 결과 취약시설물로 판정되지 않았다.
- ㅁ.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중 90% 이상이 A급 또는 B급이었으며, 취약시설물 중 지자체 관리 시설물이 가장 많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ㄷ, ㅁ

문 28. 다음 <표>는 그리스,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일본 등 5개국의 휴대전화 이용률과 건강비용 지출에 관한 자료이다.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B와 C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5개국의 휴대전화 이용률 현황

국가	A	B	C	D	E
이용률	56	79	70	97	99

※ 이용률 = 국민 100명당 가입자수

<표 2> 5개국의 1인당 건강비용 지출 현황

(단위: 달러, %)

국가	A	B	C	D	E
1인당 건강비용 지출액	5,635	3,050	2,110	2,000	3,230
지출비율	15.0	11.1	7.9	9.9	6.1

※ 1인당 건강비용 지출비율(%) = $\frac{1인당\ 건강비용\ 지출액(달러)}{1인당\ GDP(달러)} \times 100$

<보 기>

- 일본의 휴대전화 이용률은 미국보다 높고 그리스보다 낮다.
- 미국의 1인당 건강비용 지출액은 그리스의 2배 이상이다.
- 독일과 룩셈부르크의 1인당 건강비용 지출액의 합은 1인당 건강비용 지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보다 작다.
- 독일의 1인당 건강비용 지출비율은 5개국 중에서 가장 낮다.

B

- ① 그리스
- ② 일본
- ③ 룩셈부르크
- ④ 일본
- ⑤ 그리스

C

- 일본
- 룩셈부르크
- 일본
- 그리스
- 룩셈부르크

문 31. 다음은 일제강점기의 기아, 변사자, 자살자에 대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인용된 자료는?

— <보고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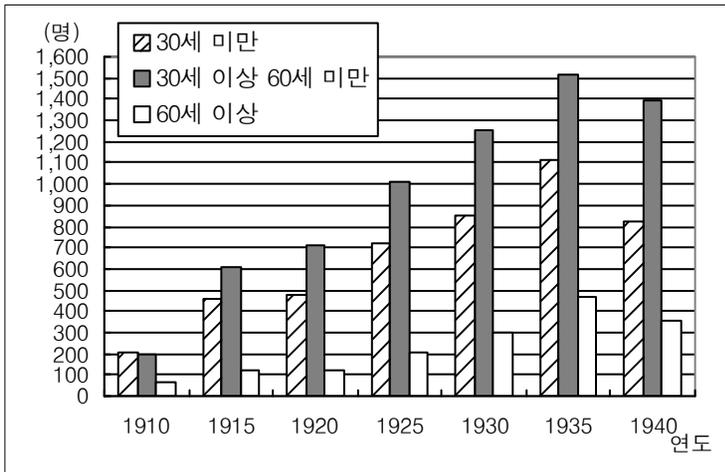
기아(棄兒:버려진 아이), 변사자(뒤틀림의 재난으로 죽은 자), 자살자 등은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불평·불만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반 민중들의 경제적 처지가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가뭄·홍수 등의 자연재해까지 잦았기 때문에 생계대책이 막막한 가운데 기아가 속출했다. 또한 변사자와 자살자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기아는 1910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1932년에는 여아가 200명이 넘었으며 남아도 150명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1925년 이후에는 매년 기아 중 여아가 남아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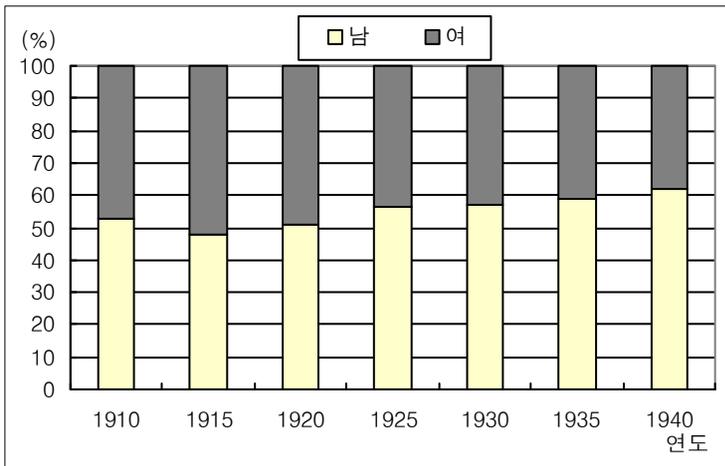
변사자는 1910년 2천여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1915년 6천여 명으로 증가했고 1930년 이후에는 1만 명을 넘어섰다. 이를 민족별로 분석하면 1910년부터 변사자 중 조선인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외국인 변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일본인 변사자는 1930년을 제외하고는 1910년보다 항상 적었다. 변사자의 성별 비율은 매년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남녀의 격차도 매년 증가했다.

자살자는 1910년 500명을 넘지 않았으나 1915년에는 1,000명을 넘었으며 1935년 3,000명을 초과했다. 연령별 자살자 수를 5년마다 조사한 결과, 1910년을 제외하고는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살자가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른 자살자의 비율은 매년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① 자살자의 연령별 추이



② 자살자의 성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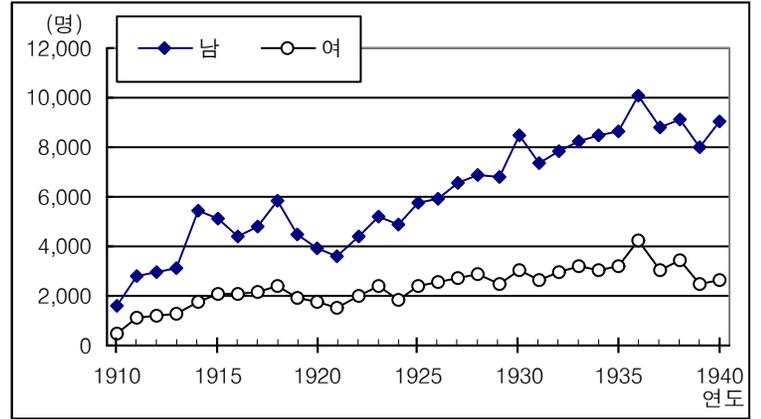


③ 변사자의 민족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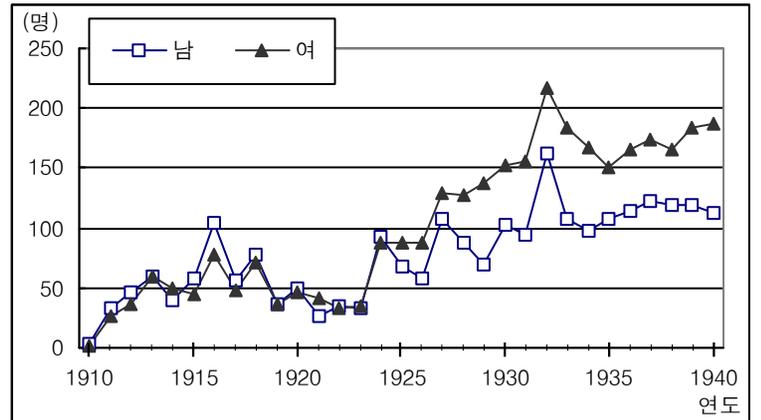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민족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
1910		1,760	293	22	2,075
1915		5,873	230	40	6,143
1920		5,381	229	43	5,653
1925		7,879	266	32	8,177
1930		11,056	390	62	11,508
1935		11,469	285	75	11,829
1940		11,343	221	87	11,651

④ 변사자의 성별 추이



⑤ 기아의 성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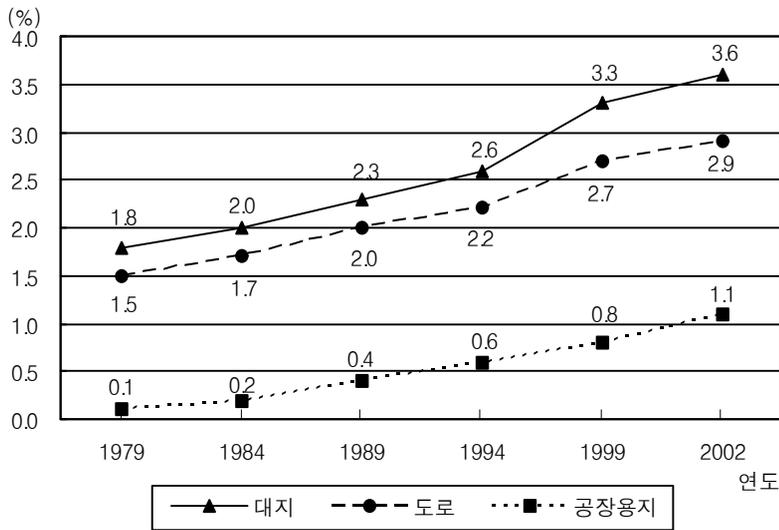
문 34. 다음 <표>는 A국의 토지구성 변화를 나타내며, <그림>은 A국 도시의 대지, 도로, 공장용지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A국의 토지구성

(단위: km²)

구분 연도	도시	산림	하천	농경지	기타	합
1979	360	5,890	550	2,780	550	10,130
1984	420	5,930	310	2,880	610	10,150
1989	490	5,850	330	2,830	620	10,120
1994	580	5,830	350	2,780	640	10,180
1999	730	5,720	400	2,630	670	10,150
2002	820	5,650	430	2,570	670	10,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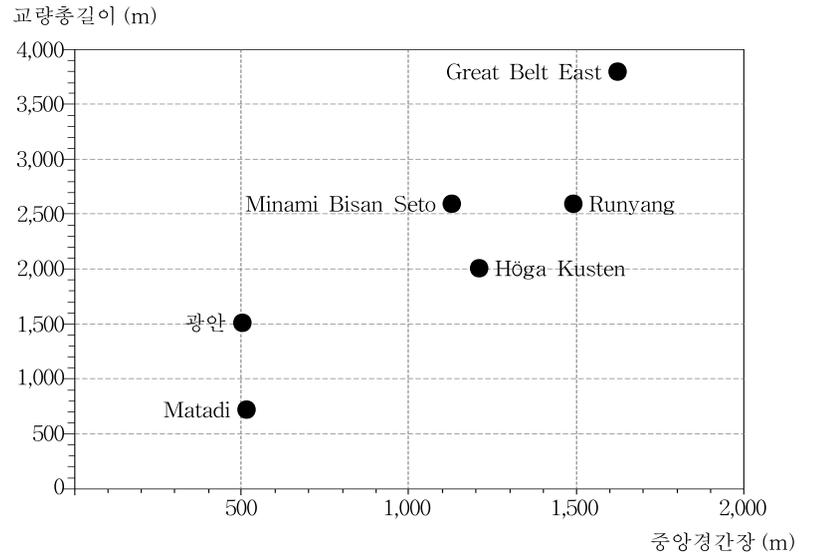
<그림> A국 도시의 대지, 도로, 공장용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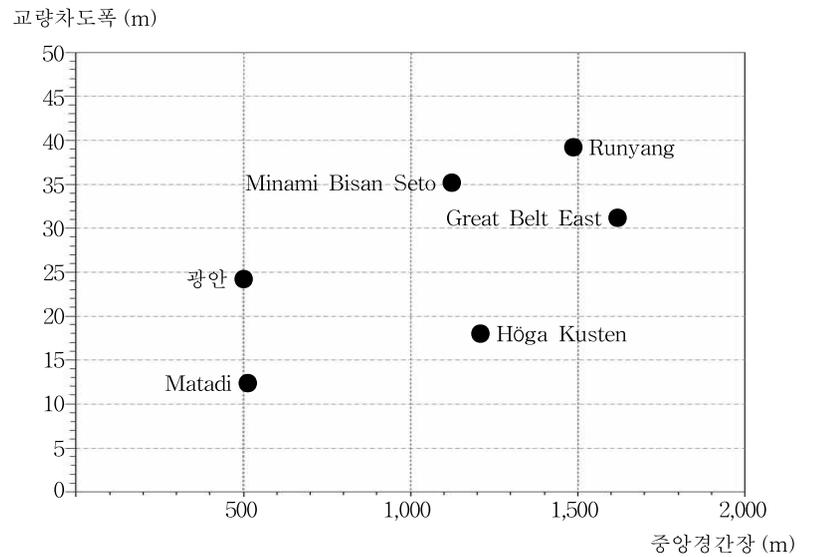
- ① 2002년 A국 도시의 도로 면적은 1979년 대비 약 240% 증가하였다.
- ② 1989년 A국 도시의 도로 면적은 1979년 A국 도시의 대지 면적보다 넓다.
- ③ 2002년 A국 도시의 공장용지 비율은 1979년 대비 1%p 증가하였다.
- ④ 1999년 A국 도시의 도로 면적은 1979년 대비 약 14km² 증가하였다.
- ⑤ 1999년 A국 도시의 대지 면적은 1999년 A국 하천 면적의 약 6%이다.

문 35. 다음 <그림>은 국내외 대표적인 6개 현수교의 특징을 비교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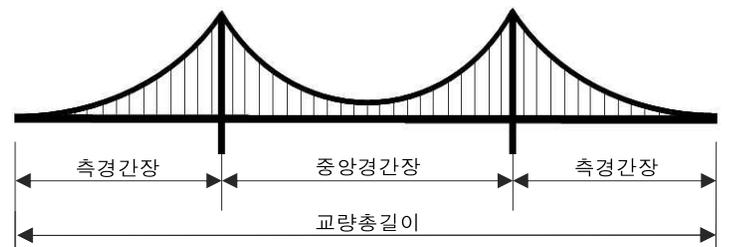
<그림 1> 중앙경간장과 교량총길이



<그림 2> 중앙경간장과 교량차도폭



※ 1) 현수교의 중앙경간장, 측경간장, 교량총길이



2) 교량총길이 = 중앙경간장 + 측경간장 × 2

3) 변장비 = $\frac{\text{중앙경간장}}{\text{교량차도폭}}$

<보 기>

- ㄱ. 측경간장이 가장 짧은 교량은 광안대교이다.
- ㄴ. 측경간장에 대한 중앙경간장의 비가 가장 큰 교량은 Matadi교이다.
- ㄷ. 변장비가 가장 작은 교량은 광안대교이다.
- ㄹ. 측경간장이 가장 긴 교량은 변장비도 가장 크다.
- ㅁ. 측경간장의 합(측경간장 × 2)이 중앙경간장보다 긴 교량은 없다.

- ① ㄱ, ㅁ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문 36. 다음 <표>는 우리나라 7대 도시의 주차장 수용가능 차량 대수 현황이다. A부터 K까지의 자료는 소실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7대 도시 주차장 수용가능 차량 대수 현황
(단위: 대)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전체
	유료	무료	소계	공영	민영	소계		
7대 도시 전체	248,234	206,460	454,694	108,234	232,029	340,263	4,481,351	5,276,308
서울	196,032	0	196,032	39,746	83,144	122,890	2,312,538	2,631,460
부산	A	B	83,278	D	59,468	C	474,241	629,749
대구	8,397	81,917	90,314	9,953	26,535	36,488	F	E
인천	3,362	43,918	47,280	13,660	17,899	31,559	469,977	548,816
광주	815	12,939	13,754	2,885	17,112	19,997	231,977	265,728
대전	I	7,849	H	J	13,907	23,758	K	G
울산	1,192	14,018	15,210	19,377	13,964	33,341	217,794	266,345

※ 전체 주차장은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으로 구성됨.

<보 기>

- ㄱ. 대전의 공영 노외주차장의 수용가능 차량 대수는 7대 도시 공영 노외주차장의 평균 수용가능 차량 대수보다 많다.
- ㄴ. 대구, 인천, 광주는 각각 노상주차장 중 유료주차장 수용가능 차량 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노외주차장 중 공영주차장 수용가능 차량 대수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다.
- ㄷ. 서울의 부설주차장 수용가능 차량 대수는 전국 부설주차장 수용가능 차량 대수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 ㄹ. 각 도시의 전체 주차장 수용가능 차량 대수 중 노외주차장 수용가능 차량 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부산이 광주보다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37. 다음 <표>는 1994 ~ 2002년 동안 한국, 독일, 일본의 에너지 소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한국, 독일, 일본의 에너지 소비 현황

구분	에너지소비량 (백만TOE)			GDP (1994년 기준 US 십억달러)			에너지원단위 (백만 TOE/1994년 기준 US 십억달러)		
	한국	독일	일본	한국	독일	일본	한국	독일	일본
	1994							0.271	0.157
1995							0.302	0.139	0.094
1996							0.316	0.196	0.093
1997							0.322	0.140	0.093
1998							0.317	0.136	0.093
1999							0.315	0.131	0.093
2000							0.308	0.128	0.092
2001							0.303	0.130	0.091
2002	204	345	513				0.300	0.128	0.090
증가율 (%)	17.2	-17.5	1.2	5.9	1.2	1.2	10.7	-18.5	

※ 1) 에너지원단위 = $\frac{\text{에너지소비량(백만TOE)}}{\text{GDP (1994년 기준 US 십억달러)}}$

2) 증가율은 1994년 대비 2002년의 증가율임.

- ① 2002년에 한국은 일본보다 에너지를 더 적게 소비하였으나, 1994년 대비 2002년의 에너지소비량 증가율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컸다.
- ② 2002년 한국의 GDP는 1994년 기준 US 6천 8백억달러이다.
- ③ 한국이 가장 큰 에너지원단위를 나타낸 해는 1997년으로 0.322 TOE/1994년 기준 US 천달러를 기록하였다.
- ④ 일본의 1994년 대비 2002년의 에너지원단위 증가율은 0이다.
- ⑤ 1994년에 독일 GDP는 일본 GDP의 2/3 이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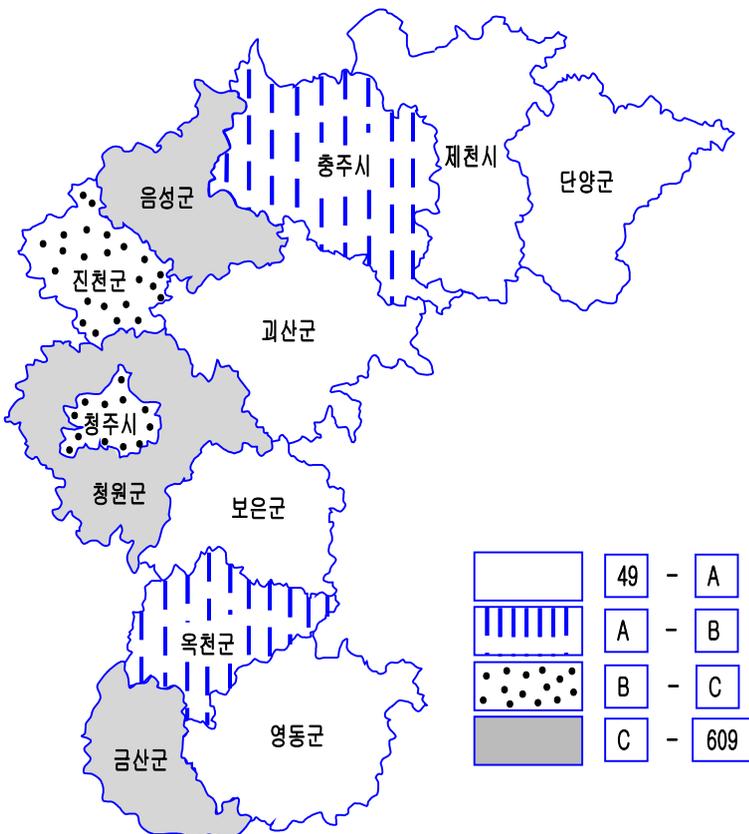
문 38. 다음 <표>는 2004년 충청도 일부 지역의 시군별 사업체 수에 관한 자료이다. <그림>은 등간격과 등빈도 분류법에 의해 <표>의 자료를 4개의 계급으로 나누어 각각 지도로 표현한 것이다. 각 <그림>에서 계급의 경계값 중 빈 칸 C, H에 해당하는 값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시군별 사업체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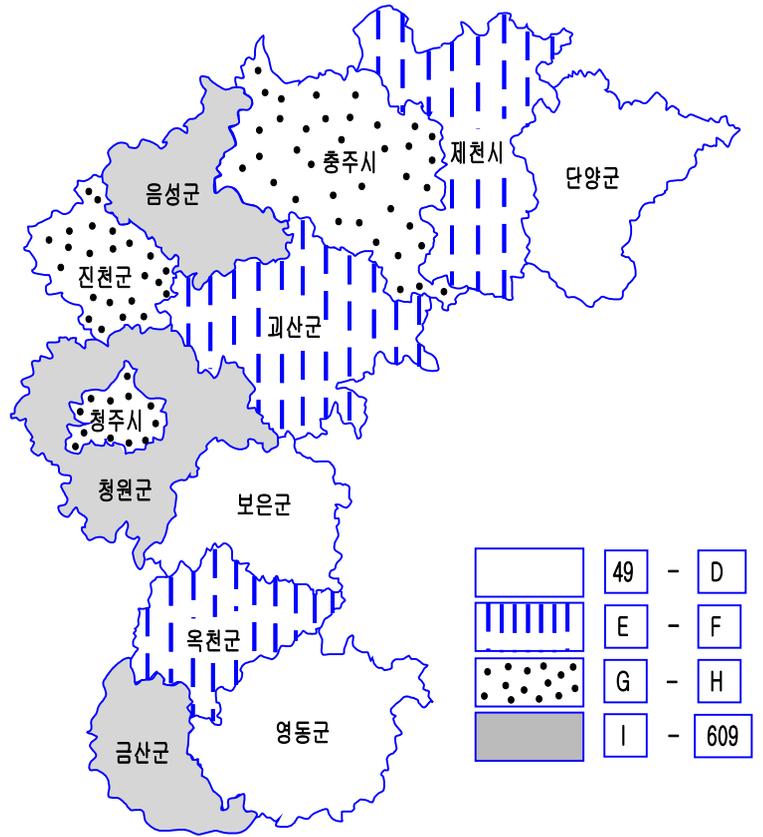
(단위: 개)

시군명	사업체 수
청주시	458
충주시	275
제천시	159
청원군	583
보은군	61
옥천군	197
영동군	63
진천군	388
괴산군	76
음성군	589
단양군	49
금산군	609

<그림 1> 등간격 분류 지도



<그림 2> 등빈도 분류 지도



- ※ 1) 등간격 분류: 자료의 값을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한 후 각 계급의 간격이 동일하도록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 단, i번째 계급과 (i+1)번째 계급의 경계값이 자료의 값과 같으면 그 자료를 i번째 계급으로 분류함 (i는 1부터 시작).
- 2) 등빈도 분류: 자료의 값을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한 후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가 동일하도록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 단, 각 계급의 시작 경계값과 끝 경계값은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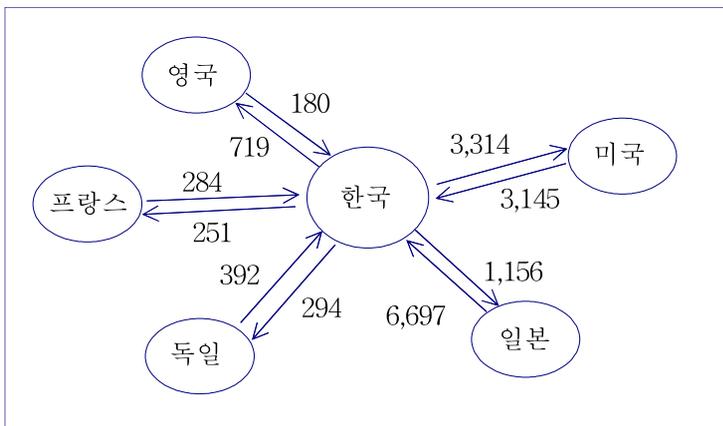
	<u>C</u>	<u>H</u>
①	468	388
②	468	458
③	469	388
④	469	458
⑤	471	583

문 39. 다음 <표>와 <그림>은 주요 국가의 특허등록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주요 국가의 특허등록현황

순위	국가	해외특허등록		국내특허등록건(B)	해외특허등록비율(A/B)
		건(A)	점유율(%)		
1	미국	106,353	26.7	85,071	1.3
2	일본	79,563	20.0	111,269	0.7
3	독일	59,858	15.0	16,901	3.5
4	프랑스	25,467	6.4	10,303	2.5
5	영국	20,269	5.1	4,170	4.9
6	스위스	13,929	3.5	1,345	10.4
7	이탈리아	11,415	2.9	4,726	2.4
8	네덜란드	11,100	2.8	2,820	3.9
9	스웨덴	8,847	2.2	2,082	4.2
10	캐나다	7,753	1.9	1,117	6.9
:	:	:	:	:	:
14	한국	7,117	1.8	22,943	0.3
:	:	:	:	:	:
	전체	398,220	100.0	316,685	1.3

<그림> 한국과 해외특허등록 상위 5개국의 관계
(단위: 건)



※ A → B: A국에서 B국으로의 해외특허등록을 의미함.

- ① 해외특허등록 상위 5개국의 해외특허등록건수의 합은 전체 해외특허등록건수의 70% 이상이다.
- ② 해외특허등록 상위 10개국 중 국내특허등록건수와 해외특허등록건수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독일이다.
- ③ 한국과 해외특허등록 상위 5개국의 관계에서 한국과 각 국가 간 해외특허등록건수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다.
- ④ 한국의 해외특허등록건수의 80% 이상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에 집중되어 있다.
- ⑤ 각 국의 국내특허등록건수는 일본이 1위이고, 미국이 2위, 독일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 40. 다음 <가정>과 <표>를 바탕으로 2003년 Z공장의 생산설비 합(T3)을 구하면?

<가정>

- 신규생산설비는 매년 초에 도입한다.
- 중고생산설비는 도입하지 않는다.
- 생산설비 현황은 매년 말에 조사한다.

<표 1> Z공장의 생산설비 누적 폐기율
(단위: %)

사용기간	생산설비의 누적 폐기율
1년 이하	0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3년 이하	20
3년 초과 4년 이하	40
4년 초과 5년 이하	60
5년 초과	100

<표 2> Z공장의 연도별 생산설비 현황
(단위: 대)

연도	사용기간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4년 이하	4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합
2000		20	9	8	6	8	0	51
2001		20	A1	8	C1	D1	E1	T1
2002		30	A2	B2	C2	D2	E2	T2
2003		10	A3	B3	C3	D3	E3	T3
2004		50	A4	B4	C4	D4	E4	T4

- ① 56
- ② 69
- ③ 74
- ④ 84
- ⑤ 103